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2. No. 2. 2001

## 多面的 人性檢査(MMPI)에 關한 初步的 研究

허성 · 심상민 · 김근우 ·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The Elementary Study of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

Seong Heo · Sang-Min Shim · Geun-Woo Kim · Byung-Soo Goo.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In order to investigate personality of oriental medical students by MMPI elementarily.

**Methods:** This study was done by comparing the score of MMPI and Sasang questionnaire. The scores of MMPI and Sasang were verified by examination of T-test and Tukey's HSD Procedure.

**Results:**

1. According to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there is no meaning. But between unmarried group and married group, there is a difference of MMPI T-scores for L, K-scale significantly.
2. In the distinction of sex and marriage between A group and B group, the MMPI T-scores of male and unmarried group have more significance on the various scale.
3.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MMPI and Sasang questionnaire, Um group(Tae-um, So-um group)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D(Depression), PT(Psychasthenia), SI(Social Introversion) scales of the MMPI.
4. In comparison between the temperament of Sasang and analysis of MMPI profile, Tae-um and So-um groups showed many similaritie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MMPI can be applied to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

**Key Word :** MMPI, Sasang questionnaire

### I : 緒 論

최근 한방의료보험에 인성검사가 요양급여항목

으로 인정된 후<sup>1)</sup>, 인성검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성검사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MMPI로 표기함)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객관적 성격검사로, 1988년 신판개정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2,3)</sup>.

· 교신저자: 허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1동 37-21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Tel. 02-3416-9734, Fax. 02-3416-9790,  
E-mail: gubs@hitel.net)

MMPI의 일차적 목적은 정신장애의 진단이지만, 또 다른 용도는 이를 정상인에게도 적용하여 성격 검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평가용 혹은 선발용 및 연구용 측정도로 활용되고 있다<sup>4)</sup>.

한의학계에서는 김 등<sup>5,6)</sup>의 알콜리즘과 사상체질과의 관계에서의 인성검사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후 체계적이고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저자는 MMPI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초보적 접근으로 한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인집단에 대한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사상설문지를 통한 비교분석을 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연구대상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143명(남자 113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MMPI(383문항)와 사상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체질에 관련한 평가는 체질감별이 되는 6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양체질에 관련 하여서는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MMPI는 김<sup>3)</sup>의 검사요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체점은 전영민이 개발한 MMPI전문가383프로그램으로 하였다.

사상설문지는 송<sup>7)</sup>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체질감별은 각 체질별 점수가 10점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무응답이 5점이상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였다. 또한 10점 이상이 두 체질에 나온 경우와 체질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무효처리하였다. 음양체질은 체질감별이 되는 65명 중 음체질과 양체질의 점수차이가 9점이상일 경우만 유효하게 처리하였다.

### 3) 통계처리방법

MMPI에 관하여는 143명의 학생의 결과를 분석하였고, 체질과 관련된 분석은 체질감별이 되는 65명, 48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S-Link사의 ISP에 의거한 통계처리 중 일원분산 분석을 이용하였고, Tukey의 HSD검정을 하였다.

## III. 研究結果

### 1. 인적사항

<표 1> 나이, 학력 및 결혼여부에 따른 분포

	나이평균 (표준편차)	고졸	대졸	미혼	기혼
남자	26.9115 (4.3148)세	103 (91.15%)	10 (8.85%)	100 (88.50%)	13 (11.50%)
여자	27.5667 (5.5665)세	19 (63.33%)	11 (36.67%)	22 (73.33%)	8 (26.67%)
	27.0490 (4.5892)세	122 (85.31%)	21 (14.69%)	122 (85.31%)	21 (14.69%)

나이는 최소 23세부터 최고 44세이며, 평균나이는 27.0490세이고 중앙값은 25세이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21명으로 전체 집단의 14.69%를 차지하였고, 성별로는 남자 중 대졸이상이 8.85%이고 여자 중에서는 36.67%를 차지하였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21명으로 전체 집단의 14.69%를 차지하였고, 남자중에서는 11.50%이고 여자중에서는 26.67%이었다.

2. MMPI결과

〈표2〉 기준집단(대학생)과 한의과학생의 각 척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집단				한의과학생				한의과학생의 T점수(N=143)	
	남(N=417)		여(N=476)		남(N=113)		여(N=30)			
	M	SD	M	SD	M	SD	M	SD	M	SD
L	3.53	2.22	3.04	1.93	2.8142	1.8971	3.0000	1.7811	47.5524	8.7135
F	12.18	5.67	12.98	5.44	11.0885	4.8395	10.7000	4.4656	47.6154	8.5175
K	11.93	4.22	11.09	3.93	12.3805	4.3472	12.3667	4.3903	51.5315	10.4839
HS	11.07	5.62	13.73	5.23	11.7876	4.9829	15.4667	5.8589	52.9720	9.8567
D	26.40	5.68	28.01	5.66	27.9381	5.7419	31.6333	5.9334	53.5035	10.2880
HY	24.47	5.61	26.57	5.61	24.8673	5.4650	28.1333	6.4687	51.1608	10.1285
PD	22.55	4.41	22.31	4.34	22.1416	4.4559	20.5667	4.1246	49.0699	9.5664
MF	27.92	4.43	33.52	4.04	28.1858	3.6780	31.9333	3.8050	51.1888	8.6129
PA	12.25	3.57	13.19	3.60	12.2743	3.0829	12.0000	3.0400	49.3077	8.7462
PT	20.68	8.17	22.86	7.52	20.2478	8.4034	21.9333	7.6471	50.1329	10.1719
SC	25.76	10.45	28.85	9.46	24.4336	9.7604	25.0000	8.3872	48.4336	9.6338
MA	21.53	4.46	21.43	4.68	19.7080	4.4193	17.8333	3.7791	45.1119	9.7353
SI	34.93	8.14	37.17	8.01	36.2035	8.9982	38.1667	7.4560	51.5385	10.6987

한의과학생의 MMPI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집단(대학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고, T점수의 평균에서 60점 이상 40점이하는 없었다.

※ 타당도 척도 L, F, K 임상척도 Hs(Hypochondriasis)-건강염려증, D(Depression)-우울증, Hy(Hysteria)

-히스테리, Pd(Psychopathic Deviate)-반사회성, Mf(Masculinity-Femininity)-남성특성-여성특성, Pa(Paranoia)-편집증, Pt(Psychasthenia)-강박증, Sc(Schizophrenia)-정신분열증, Ma(Hypomonia)-경조증, Si(Social Introversion)-내향성.

〈표3〉 전체학생의 성별 및 결혼여부에 따른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N=113)	여(N=30)	유의도(P)	미혼(N=122)	기혼(N=21)	유의도(P)
L	46.9381(8.5160)	49.8667(9.2017)	0.1019	46.9098(8.4638)	51.2857(9.4082)	0.0330*
F	48.1062(8.5726)	45.7667(8.1819)	0.1820	48.0492(8.5095)	45.0952(8.3181)	0.1427
K	51.0708(10.2936)	53.2667(11.1817)	0.3095	50.7869(9.8780)	55.8571(12.9240)	0.0402*
HS	52.4690(9.3399)	54.8667(11.5810)	0.2376	52.9016(9.3785)	53.3810(12.5478)	0.8378
D	52.7080(10.1380)	56.5000(10.4675)	0.0726	53.1967(9.9150)	55.2857(12.3618)	0.3920
HY	50.7257(9.7498)	52.8000(11.4753)	0.3204	51.2869(9.6205)	50.4286(12.9521)	0.7212
PD	49.5752(9.7658)	47.1667(8.6626)	0.2215	49.2541(9.5775)	48.0000(9.6644)	0.5808
MF	50.4867(8.2723)	53.8333(9.4762)	0.0582	51.5246(8.7388)	49.2381(7.7454)	0.2626
PA	50.0177(8.7209)	46.6333(8.4547)	0.0593	49.1148(8.871)	50.4286(8.0906)	0.5268
PT	50.0354(10.1796)	50.5000(10.3082)	0.8249	49.6721(10.3136)	52.8095(9.0698)	0.1927
SC	48.8850(9.5195)	46.7333(10.0342)	0.2784	48.3934(9.8950)	48.6667(8.1568)	0.9049
MA	45.8496(10.0483)	42.3333(8.0014)	0.0786	45.2869(10.0285)	44.0952(7.9492)	0.6061
SI	51.5841(11.0653)	51.3667(9.3568)	0.9216	51.3689(10.5401)	52.5238(11.8052)	0.6493

\*는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전체 학생의 성별 T점수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미혼과 기혼간에는 L과 K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4> A군과 B군의 T점수평균 및 표준편차

	A군(N=101)	B군(N=42)	유의도(P)
L	46.4554(7.3967)	50.1905(10.9282)	0.0190*
F	46.1188(6.3234)	51.2143(11.6169)	0.0010*
K	50.6832(9.4413)	53.5714(12.5390)	0.1340
HS	51.0891(8.6372)	57.5000(11.1711)	0.0003*
D	51.2178(8.5201)	59.0000(12.0709)	0.0000*
HY	49.4752(8.6771)	55.2143(12.1586)	0.0018*
PD	48.2871(8.7400)	50.9524(11.2031)	0.1296
MF	50.5050(7.2272)	52.8333(11.2074)	0.1415
PA	48.9901(8.1554)	50.0714(10.0932)	0.5026
PT	47.9505(8.4135)	55.3810(12.0729)	0.0000*
SC	46.2376(7.8818)	53.7143(11.3788)	0.0000*
MA	45.7030(9.0095)	43.6905(11.2845)	0.2617
SI	49.5941(9.5154)	56.2143(11.9950)	0.0006*

\*는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 A군: T점수가 기준점수(30-70)에 모두 해당하는 집단. B군: T점수 중 70이상이거나 30이하가 있는 집단  
L, F, HS, D, HY, PT, SC, SI 척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5> A군과 B군의 성별, 결혼여부에 따른 T점수평균과 표준분포

	A군 (N=101)	B군(N=42)					
		남자(N=31)	여자(N=11)	유의도 (P)	미혼(N=32)	기혼(N=10)	유의도 (P)
L	46.4554	50.3548(10.7379)	49.7273(11.9757)	0.0632	50.5313(11.4722)	49.1000(9.4334)	0.0581
F	46.1188	52.7742(11.4359)	46.8182(11.4962)	0.0005*	52.2813(11.9278)	47.8000(10.3795)	0.0014*
K	50.6832	51.4839(12.3582)	59.4545(11.6135)	0.0299	51.4688(11.8621)	60.3000(12.8673)	0.0206*
HS	51.0891	56.1613(9.8661)	61.2727(14.0861)	0.0005*	57.2188(10.6884)	58.4000(13.1842)	0.0015*
D	51.2178	59.1935(11.1158)	58.4545(15.0424)	0.0001*	59.0000(11.3080)	59.0000(14.9443)	0.0001*
HY	49.4752	54.4839(11.2276)	57.2727(14.8868)	0.0056*	56.0313(10.6846)	52.6000(16.4398)	0.0049*
PD	48.2871	51.8387(12.1164)	48.4545(8.0544)	0.1910	50.9375(11.3505)	51.0000(11.3137)	0.3184
MF	50.5050	52.2258(10.1447)	54.5455(14.2082)	0.2535	54.3750(11.4237)	47.9000(9.3387)	0.0381*
PA	48.9901	51.0000(10.1259)	47.4545(9.9936)	0.4120	50.0313(10.6422)	50.2000(8.5997)	0.7983
PT	47.9505	56.9355(11.0663)	51.0000(14.1986)	0.0001*	56.0938(12.6066)	53.1000(10.4398)	0.0002*
SC	46.2376	54.6452(11.2947)	51.0909(11.7427)	0.0000*	54.5313(12.0482)	51.1000(8.9374)	0.0000*
MA	45.7030	44.9355(12.0884)	40.1818(8.0848)	0.2024	44.5313(12.0723)	41.0000(8.2192)	0.3236
SI	49.5941	57.5161(12.1816)	52.5455(11.1657)	0.0011*	57.2500(11.9461)	52.9000(12.1605)	0.0015*

\*는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A군과 B군의 성별 T점수 분포는 F, HS, D, HY, PT, SC,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결혼여부에 따른 분포에서는 F, K, HS, D, HY, MF, PT, SC,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3. 사상설문지 결과

<표6> 전체 학생의 체질별분포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무효	음체질	양체질	무효
도수	17	34	10	4	74	41	7	91
유효백분율(%)	12.23	24.46	7.19	2.88	53.24	29.50	5.04	65.47
무효를 제외한 백분율(%)	26.15	52.31	15.38	6.15		85.42	14.58	

총 143명 중 누락이 4명이고, 나머지 139명 중 태음인 17명(12.23%), 소음인 34명(24.46%), 소양인 10명 7.19%, 태양인 4명(2.88%), 무효 74명(53.24%)이었다. 그 중에서 무효를 제외하고 태음인 26.15%, 소음인 52.31%, 소양인 15.38%, 태양인 6.15%이었다.

139명 중 양체질점수의 음체질점수의 차이가 9점 이상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하여 양체질이 7명, 음체질이 41명, 무효가 91명으로 무효가 65.47%이었으며 무효를 뺀 유효백분율로 보면 양체질이 14.58%, 음체질이 85.42%이었다.

4. MMPI와 사상설문지의 비교분석

<표7> 사상체질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태음인(N=17)	소음인(N=34)	소양인(N=10)	태양인(N=4)	유의도(P)
Q	2.0588(4.3225)	1.8824(5.4259)	5.5000(12.6513)	1.0000(0.8165)	0.4659
L	47.2941(7.6955)	50.4118(10.9326)	48.4000(9.4304)	57.2500(12.5797)	0.3216
F	46.2353(7.5872)	49.0588(8.1870)	46.1000(5.6657)	46.7500(11.9548)	0.5688
K	50.2941(9.4721)	51.8824(10.4382)	52.2000(12.1454)	52.5000(10.9697)	0.9503
HS	53.5294(8.7829)	58.5294(9.9430)	47.5000(9.4663)	50.2500(9.5350)	0.0107*
D	51.3529(9.2665)	58.3824(9.5854)	49.5000(6.7700)	45.7500(9.0692)	0.0038*
HY	53.0000(8.7963)	56.3529(10.3861)	45.2000(9.1990)	56.5000(8.5829)	0.0201*
PD	50.5294(9.3080)	47.7647(9.7330)	48.5000(8.0035)	47.2500(13.9374)	0.7978
MF	47.3529(6.4994)	53.3529(9.0516)	52.5000(4.8362)	50.7500(9.1788)	0.0938
PA	49.0588(8.9336)	51.1471(8.8562)	51.2000(10.0973)	45.7500(8.4607)	0.6333
PT	49.5294(10.6367)	55.0000(8.4315)	50.7000(6.2725)	42.5000(11.2694)	0.0271*
SC	48.1765(10.3757)	50.9118(8.7780)	49.7000(9.4874)	43.0000(9.6954)	0.3932
MA	46.7647(9.1551)	42.7941(9.5688)	48.6000(7.2755)	50.2500(6.6018)	0.1448
SI	49.6471(11.6777)	56.0294(10.2882)	50.9000(11.9112)	41.2500(5.4391)	0.0311*

\*는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사상체질별 T점수는 HS, D, HY, PT,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표8> 음양체질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N=48)	양인(N=7)	음인(N=14)	유의도(P)
L	49.4375(10.0253)	51.5714(12.0119)	49.0732(9.7734)	0.5480
F	49.5833(8.7466)	44.5714(7.9762)	50.4390(8.6719)	0.1014
K	51.3542(11.0905)	57.8571(14.5193)	50.2439(10.2098)	0.0935
HS	56.4583(10.1771)	49.7143(7.6966)	57.6098(10.1732)	0.0569
D	55.2083(11.7672)	44.8571(6.0396)	56.9756(11.6308)	0.0102*
HY	54.4167(10.2725)	47.8571(9.0264)	55.5366(10.1467)	0.0670
PD	49.0208(10.1047)	49.5714(10.1793)	48.9268(10.2161)	0.8780
MF	52.1042(9.2650)	48.4286(9.0711)	52.7317(9.2602)	0.2605
PA	50.1250(10.1847)	46.7143(10.8430)	50.7073(10.0927)	0.3432
PT	53.0833(11.3566)	43.8571(7.8194)	54.6585(11.1772)	0.0183*
SC	50.3958(10.6006)	45.0000(8.2057)	51.3171(10.7690)	0.1469
MA	44.8958(10.0831)	50.2857(8.3009)	43.9756(10.1575)	0.1273
SI	53.7292(12.2209)	40.4286(4.6136)	56.0000(11.6640)	0.0012*

\*는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음양체질별 T점수는 D,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표9> A와 B군 및 체질별 Tukey다중검정 결과

	A군 (N=101)	B군 (N=42)	B군 성별		B군 결혼여부		사상체질군(N=65)				음양군(N=48)	
			남자 (N=31)	여자 (N=11)	미혼 (N=)	기혼 (N=)	태음인 (N=17)	소음인 (N=34)	소양인 (N=10)	태양인 (N=4)	양인 (N=7)	음인 (N=41)
L	B군*	A군*										
F	B군**	A군**	A군**		A군**							
K				A군*	기혼*	A군*미혼*						
HS	B군**	A군**	A군*	A군**	A군**			소양**	소음**			
D	B군**	A군**	A군**	A군*	A군**	A군*		소양*태양*	소음*	소음*	음인**	양인**
HY	B군**	A군**	A군*	A군*	A군**			소양**	소음**			
PD												
MF												
PA												
PT	B군**	A군**	A군**		A군**			태양*		소음*	음인*	양인*
SC	B군**	A군**	A군**		A군**							
MA												
SI	B군**	A군**	A군**		A군**						음인**	양인**

\*는 유의수준 5%에서, \*\*는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의미  
Tukey 다중검정에서 B군은 A군과 비교할 때 L, F, HS, D, HY, PT, SC, SI 척도에 대하여 유의성이 있었고, 성  
별 및 결혼여부는 F, K, HS, D, HY, PT, SC,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사상체질별로는 HS, D, HY, PT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음양체질별로는 D, PT,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  
었다.

#### IV. 考 察

다면적 인성검사(MMPI)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Hathaway와 McKinley에 의해 정신장애의 진단 평가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1942년 출판된 이후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심리검사가 되었다<sup>24)</sup>.

MMPI는 다른 객관적 검사와 달리 경험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어 그 실용성이 매우 높은 검사로 평가된다. MMPI의 일차적 목적은 정신장애의 진단이지만, 또 다른 용도는 이를 정상인에게도 적용하여 성격 검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평가용 혹은 선발용 및 연구용 측정도구로 활용되고 있다<sup>4)</sup>.

정상인에게서 MMPI가 측정하고 있는 특성을 밝히는 것은 정상적인 집단의 프로파일 해석이 정신과 집단이 아니라 그 집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sup>8)</sup>는 논의가 있어왔고 Anderson과 Kuncze<sup>9)</sup>는 비슷한 프로파일이 비정신과 장면에서는 반드시 같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상진전에 근거한 상승척도에 대한 관련성은 정상적인 개인이 측정될 때에는 “완화된 형태(waterd-down version)”이상의 해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하였다<sup>10)</sup>.

MMPI의 구성은 질문지형 성격검사인데도 상당히 투사법적 함축성을 띤 550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16문항이 중복되어 총 5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사자가 “그렇다”, “아니다”의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면 때로는 피검사자가 제시하는 자기보고와 타인이 그의 행동을 보고 느끼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검사문항에 내재하는 모호성이고 둘째 사람들 간에 자기인식이나 적절한 행동을 보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투사법적 함축성 외에 MMPI의 또 다른 특징은 타당도 척도 4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정상집단에 관한 연구는 이<sup>11)</sup>가 개별척도와 관련된 정상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이<sup>12)</sup>가 신학대 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송<sup>13)</sup>이 교사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사상체질과 관련하여서는 김<sup>6)</sup>

이 사상체질분류검사와 MMPI의 비교분석을, 박<sup>14)</sup>이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 특성에 대하여, 박<sup>15)</sup>이 사상체질의 판별 및 심리특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김<sup>16)</sup>이 대학생의 성별, 계열별 사상체질 및 자아방어기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집단의 하나인 한의과 본3학년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간편방식인 MMPI383 문항과 송<sup>7)</sup>의 사상설문지를 사용하였다.

MMPI결과 한의과 학생의 원점수평균은 기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평균T점수도 60이상이나 40이하의 없어 질환이나 특징이 있는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정상집단임을 볼 수 있었다(표2).

전체학생 143명 중 평균나이는 27.049세이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21명으로 전체 집단의 14.69%를 차지하였고, 기혼이 21명으로 같은 비율이었다(표1).

전체 학생의 성별 T점수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미혼과 기혼간에는 L과 K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3).

L, F, K척도는 타당성 척도로서, L(부인)척도는 원래 피검사자가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다소 고의적이고도 부정적하며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려는 척도이다. 이 척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이 척도가 낮을수록 그는 일반적인 인간적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세련(psychological sophistication)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수가 높으면 그와 같은 세련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머리가 좋을수록 L척도의 점수는 낮게 나온다. 그 외에 L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관습적이고 사회에 순응적이며, 생각에 독창성이 없고, 문제 해결방식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L점수가 45-59사이인 사소한 사회적 약점을 적절히 부인하거나 인정할 줄 알거나, 호감을 주는 자아상을 창조하려 시도하는 세련된 환자로 해석된다.

F척도는 거의 언제나 어느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일반 대중들의 그것과 다른 정도를 측정한다. F가 높을 때 고의적으로 나쁘게 보이려는

(faking-bad) 경우는 매우 드물다.

F척도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영역이 많고 문제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첫째로, 그것은 검사태도의 지표로서 이상반응의 경향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로 프로파일의 무효(Invalid)가 아님이 확인될 경우 F척도는 정신병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침이 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F척도의 점수를 통해서 그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행동양식 혹은 사고형태를 알 수 있다.

K척도가 측정하는 것은 방어성과 경계심인데, 정상인에서 K점수가 46-55사이는 자기노출과 자기보호간에(혹은 자기평가와 비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대학생 포함)이라면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자기수준의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된다<sup>2-4)</sup>.

기혼자에서 L과 K척도가 유의성있게 높게 나타난 것은 미혼자와 비교할 때 보다 사회에 순응적이고 생각의 독창성이나 문제 해결방식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스트레스를 더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군에 대한 B군의 성별 T점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B군의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성 있는 척도가 많이 나왔으며, 결혼여부에 따른 분포를 보면 기혼자 보다 오히려 미혼자가 유의성 있는 척도가 많이 나왔다(표5,9). 이는 전체집단의 비교에서 기혼자 L, K 척도에서 높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B군에서의 양상은 여자나 기혼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경증적인 문제를 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송<sup>13)</sup>은 교사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규준집단에 비해 남교사 집단이 K척도가 높았고, 여교사 집단은 K척도가 낮았다. 남녀비교에서는 여교사 집단이 남교사 집단보다 MF, SI 척도에서 낮았고, MA 척도에서는 높게 나왔다. 이<sup>12)</sup>는 신학대학생에 관한 특성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L 척도에서 높

았고, 임상척도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PA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MMPI의 결과 중 성별과 결혼여부에 관한 논의는, 여자와 기혼자 집단의 수가 부족하여 유의성있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차후에 더욱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사상체질별로 보면 총 143명 중 누락이 4명이 고, 나머지 139명 중 태음인 17명(12.23%), 소음인 34명(24.46%), 소양인 10명 7.19%, 태양인 4명(2.88%), 무효 74명(53.24%)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효를 제외하고 태음인 26.15%, 소음인 52.31%, 소양인 15.38%, 태양인 6.15%이었다.(표5) 동의수세보원에서 언급한 사상체질별 비율<sup>17)</sup>보다는 소음인이 높고 태음인이 낮게 나왔다.

139명 중 음체질에 응답한 평균점수는 13.3453이고 표준편차는 4.0248이었으며, 양체질에 응답한 평균점수는 8.4245이고 표준편차 4.2135이었다. 그 중 양체질점수와 음체질점수의 차이가 9점이상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하여 양체질이 7명, 음체질이 41명, 무효가 91명이었다(표6). 비율적으로는 14.68%(양인)와 85.42%(음인)으로 동의수세보원의 비율<sup>17)</sup>과 비슷하였다.

사상체질과 MMPI의 비교에서 사상체질별 T점수는 HS, D, HY, PT,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음양체질별로는 D, PT,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표7, 8). 그 중에서 Tukey 다중검정을 한 결과 사상체질별로는 HS, D, HY, PT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음양체질별로는 D, PT, 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표9).

유의성있는 척도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건강염려증(HS) 척도의 임상적 특징은 신체기능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그와 관련되는 질환이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불안이다. 우울증(D) 척도는 신경증적 혹은 내인성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반응성 혹은 외인성 우울증을 측정한다. 따라서 환자의 기분이 변함에 따라 하루하루 변할 수 있다. 히스테리(HY) 척도는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부인'의 양과 형태를 측정한다. 강박증(PT) 척도는 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적 불안으로 원칙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형(특성불안)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상



황을 측정한다. 내향성(SI) 척도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높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낮을 때)를 측정하는 척도이다<sup>2-4)</sup>.

동의수세보원 擴充論<sup>17)</sup>에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 偷逸之心 必過也……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 物慾之心 必過也’라하여 소음인은 비록 암컷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더러는 수컷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니, 만일 전적으로 암컷이 되기를 좋아한다면 安逸을 꾀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칠 것이고, 태음인은 비록 內守하기를 좋아하지만 또한 外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니 만일 전적으로 內守하기만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物慾에 빠지는 마음이 지나칠 것이다 하였다. 辨證論<sup>17)</sup>에는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 居之安 資之深而 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 怯心 至於怕心則 大病作而 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 卽活也’라하여 태음인은 항상 겁내는 마음이 있으니 겁내는 마음이 안정하고 고요하면 거처가 편안하며 실력이 축적되어서 도덕에 나아갈 것이고 겁내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이르게 되면 큰 병이 발생하여 정충이 될 것이니 정충증은 태음인 병에서 중증이다……소음인은 항상 불안정한 마음이 있으니 불안정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면 脾臟의 氣가 곧 활발할 것이다 하였다.

따라서 동의수세보원에서 陰人의 性情과 MMPI의 D, PT, SI 척도 해석상의 특성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陰人이 陽人에 비해 우울증(D), 강박증(PT), 내향성(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는데 이는 김<sup>6)</sup>이 한의대 본과 3학년 126명 중 체질 감별이 가능한 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MMPI 점수와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소음인과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D, PT, SI 척도가 유의성있게 높았던 결과와 같았다.

박<sup>14)</sup>은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NEO-P-I-R(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ion)의 인성검사 결과 소음인은 DSM-IV의 성격특성과 비교하여 우울적 성격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NEO-P-I-R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우울증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였다.

한편, 최<sup>19)</sup>는 사상인의 심성과 Jung의 정신의 사기능 유형을 비교한 연구에서 소음인의 심리는 사고형과 유사하며, 태음인의 심리는 감각형과 유사하다 하였으나 박<sup>14)</sup>은 소양인은 외향적 사고형, 외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에서, 태음인은 외향적 직관형,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사고형에서, 소음인은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직관형, 내향적 감정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사용한 체질설문지가 문제마다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어려우며 문항수도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의 오차가 큰 점과 표본집단의 수가 부족한 점이 있으며, 566문항으로 검사할 때보다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적었고, 성격유형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sup>18)</sup>와 같은 다른 검사를 병행하지 못하여 연구의 폭이 적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통계처리방식에서도 이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체질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도 차후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한방에서 신경정신과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MMPI활용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임상활용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 V. 結 論

999년부터 2000년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143명 중 MMPI(383문항)와 사상설문지를 실시하고, 그 중 체질에 관련하여서는 65명(48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학생의 성별 T점수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미혼과 기혼간에는 L과 K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A군(T점수가 모두 30-70사이에 해당하는 집단)과 B군(T점수 중 70이상이거나 30이하가 있는 집단)의 성별, 결혼여부에 대한 T점수는 남학생과 미혼자가 여학생과 기혼자보다 더 많은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사상체질과 MMPI의 비교에서 사상체질별로는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강박증(PT)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음양체질별로는 우울증(D), 강박증(PT), 내향성(SI) 척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4. 사상체질별 분류에서 陰人의性情과 MMPI의 우울증(D), 강박증(PT), 내향성(SI) 척도상승과는 그 임상적 의미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해석상의 특성은 서로 유사성이 있다.

### 參考文獻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대한한방병원협회. 2001:49.
2. 김중술. 다면적 인성검사. 개정판.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1, 9-10, 15, 36-39, 43-46, 143-144, 147.
3.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다면적인성검사실시요강. 개정판. 서울:한국가이던스. 1994:3-13.
4. 안창일. MMPI의 다차원적 연구. 서울:시그마프레스. 2001:1-2, 278-280, 290-298.
5. 김종우, 김지혁, 황의완. 알콜리즘 환자의 성격특성에 관한 임상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2; 3(2):65-85.
6. 김종원, 김종우, 고병희, 송일병.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와 多面的人性檢査(MMPI)의 比較分析을 통한 四象體質鑑別과 四象體質別人格特性에 關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94; 15(1):66-74.
7.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57-65.

8. Murray, J. B., Munley, M. J., & Gilbert, T. E. The Pd scale of the MMPI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1965:48-51.
9. Kuncze, J. T., & Anderson, W. P. Perspectives on uses of the MMPI in nonpsychiatric settings. In P. Mckeynolds, & G. J. Chelune (Eds.), Advances in Psychology Assess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1984.
10. Graham, J. R., & McCord. Interpretation of moderately elevated MMPI scores for normal su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985:477-484.
11. 이현주. MMPI 개별 척도와 관련된 정상인의 행동특성.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3:1-50.
12. 이동규. 신학대학생의 MMPI 프로파일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1-37.
13. 송혜경. MMPI에 나타난 교사의 성격 특성.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3:1-40.
14. 박효인.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관계. 원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0:1-175.
15. 박진미. 사상체질의 판별 및 심리특성과의 관계. 인제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1-33.
16. 김은경. 대학생의 성별, 계절별에 따른 사상체질 및 자아방어기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1-55.
1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서울:집문당. 1997:84-88, 349, 425, 427, 439, 495-496.
18. 서동선. MBTI 성격검사와 아이젠크 성격검사(EPQ)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65.
19. 최은규, 구병수. 四象人의 心性과 翁(C. G. Jung)의 精神의 四機能 類型 比較 考察.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7; 8(1):201-214.